

# 렘 콜하스의 실내공간과 질 들뢰즈 회화론의 유사점 연구

## Research about Similarities in Interior Space of Rem Koolhaas and Painting Theory of Gilles Deleuze

김석영  
서일대학교 실내디자인과

Suk-Young Kim(1scale@naver.com)

### 요약

현대에 이르러 공간디자인 분야에 나타난 의미 있는 시도는 공간구축과 담론의 교차점을 찾으려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현대 철학자인 질 들뢰즈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회화를 분석하여 자신의 담론을 전개한 문헌에서 공간적 단서를 찾아 현대 공간디자인과의 공통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들뢰즈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컨의 회화는 골격-배경(아플라), 형상-형태(형상) 그리고 윤곽-한계(트랙)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이러한 회화의 세 요소로부터 '형상-사건의 발생', '트랙-감각의 장소', '아플라-배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공간적 분석어를 추출했다. 그리고 이 분석어로 렘 콜하스의 최근 작품을 분석했다. 렘 콜하스의 작품에서 확인되는 들뢰즈 공간론은 사용자와 공간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 중심, 사건 발생을 유도하는 장소, 사용자와 공간 또는 공간과 대지 사이의 차이생성이란 방식의 적용이다. 결과적으로 현대 담론과 공간디자인 모두는 생명 운동에 의한 '차이'로서 이해된다는 공통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렘 콜하스 | 질 들뢰즈 | 프란시스 베이컨 | 현대 공간디자인 |

### Abstract

Recently, significant tries appeared in the spatial design field were appreciated as tries to find crossing between space formation and discourse. This study is to find spatial clues from Gilles Deleuze, the modern philosopher's literature where he developed his discourse analyzing paintings of Francis Bacon, and reveal common characteristics with the contemporary spatial desig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leuze, Bacon's paintings are separated into frame-aplat, shape-figure, and contour-track. From these three elements, I extracted spatially analyzing languages of 'occurrence of shape-accident', 'space of track-sense', and 'interaction of aplat-background.' Then with these analyzing languages, I analyzed latest works of Rem Koolhaas. Deleuze Space Theory confirmed in works of Rem Koolhaas is the application of accident-focused occurred between the user and space, the space that induces accident, and differentiation between the user and space or space and site. As a result, I could confirm the common characteristic that both modern discourse and spatial design are understood as 'difference' from life and movement.

■ keyword : | Rem Koolhaas | Gilles Deleuze | Francis bacon | Contemporary Spatial Design |

## 1. 서론

### 1. 연구배경과 목적

현대에 이르러 공간디자인 분야에 나타난 의미 있는 시도는 공간건축과 담론의 교차점을 찾으려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50년대 언어학이 발달이 되어 발달하기 시작한 구조주의는 인간 문화에 숨겨진 심층적 구조의 탐구에 집중했으며 이러한 사고는 과학과 합리적 사고의 발달에 힘입어 문화전발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서구사회는, 구조주의가 지닌 경직된 구조와 더불어 우연이라는 불확정적 요소까지도 인정하는, 후기구조주의 사고로 전환되었다. 오늘날 공간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시도들은 후기구조주의 담론의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후기구조주의 사상가인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회화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들뢰즈의 회화론이 캔버스 위에 대상을 재현했던 고전회화와 달리 감상자에게 전달되는 힘을 탐구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힘은 감상자에게 작용하는 모종의 힘이다. 따라서 감상자와 회화와의 관계는 공간과 사용자와의 관계로 해석 가능하다. 이 점이 본 연구에서 현대 공간디자인을 분석하고자하는 관점이다.

오늘날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시도하고 있는 공간과 담론의 접점은 새로운 방식의 건축공간이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렘 콜하스(Rem Koolhaas)는 현대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디자이너 중 한 사람이며,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는 등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건축가로 평가 받고 있다. 그가 발표하고 있는 작품은 기존 건축의 구축적 한계를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극복하려 하고 있다. 또한 건축이론가들로부터 렘 콜하스의 작품이 질 들뢰즈 담론과 관계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1].

본 연구는 건축의 외연적 형태보다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행위와 사용방식, 즉 공간 내부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작품을 계획한 렘 콜하스의 공간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의 공간에서 발견되는 콘텐츠 변화라는

접근방식이 들뢰즈 회화론에서의 힘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질 들뢰즈의 회화론이 지닌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여 렘 콜하스의 작품과의 교차점을 분석하여 서로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있다.

다음은 최근 발표된 렘 콜하스와 질 들뢰즈의 이론에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 목록이다. 목록을 통해 렘 콜하스의 작품이 건축공간 내부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콘텐츠) 그리고 들뢰즈의 이론과 일정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들뢰즈의 철학 담론 중에서도 조형언어를 사용하는 유사영역인 회화이론을 통해 현대담론과 렘 콜하스의 공간 사이의 유사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표 1. 렘 콜하스 관련 선행논문 목록

연구자	논문제목	발표기관	발표년도	비고
장용순	내재성 개념으로 본 현대 건축의 이분법 붕괴와 생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1	콘텐츠 들뢰즈
박영태	콘텐츠 중심의 공간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 공간의 질료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9	콘텐츠 들뢰즈
박하나	들뢰즈의 주름론으로 본 해체주의 건축 : 프랭크 게리, 렘 콜하스, 피터 아이젠만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사학회	2009	들뢰즈
김석영	신체성에 기초한 현대 회화와 렘 콜하스 실내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9	콘텐츠 들뢰즈 회화
김석영	질 들뢰즈의 공간담론에 기초한 렘 콜하스 실내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9	콘텐츠 들뢰즈
박형진	렘 콜하스 건축의 장소적 특성과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7	콘텐츠
권경민	렘 콜하스와 카즈요 세지마 건축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조직과 공간구성 방법의 비교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7	콘텐츠
김종진	분기(bifurcation)의 개념과 공간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5	콘텐츠 들뢰즈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가 참고하는 질 들뢰즈의 중요 문헌은 「감각의 논리」(Logique de la Sensation)이다. 적지 않은 철학자들이 예술작품에서 자신들의 담론적 특성을 찾고자 시도했다. 아마도 예술작품은, 시대를 막론하고, 과

거를 기초삼아 미래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질 들뢰즈는 「감각의 논리」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회화를 몇 가지 요소로 분석하여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설명했다.

들뢰즈가 분석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회화는 2차원 조형요소들이지만 평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들뢰즈의 회화론에서 현대 공간디자인과 담론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의 방법은 앞서 밝힌 들뢰즈의 문헌을 통해 고전 회화의 한계를 극복하여 과거와 분리되는 근대 이후 회화의 전반적 특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베이컨 회화의 내용을 각각의 요소별로 구분한다. 이를 토대로 들뢰즈의 철학이 지닌 공간적 특성을 확인하고 작품의 분석을 위한 분석어를 도출한다. 그리고 렘 콜하스의 건축공간과 분석어 간의 공통요소를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 담론과 공간과의 공통적 유사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가 유사점을 찾는 연구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들뢰즈의 사고로부터 도출한 분석어를 이용해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분석 대상은 렘 콜하스의 2000년 이후의 작품에 중에서 완공된 작품으로 한정한다. 분석은 실제로 완공된 공간을 직접 방문하거나 렘 콜하스(OMA)의 홈페이지 그리고 전문지의 도판과 도면을 통해 이루어 졌다.

## II. 질 들뢰즈 회화론과 베이컨 회화의 특징

### 1. 현대회화에서의 ‘차이’

회화의 기원은 수천 년 전의 동굴벽화에서 그 기원을 찾지만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시도는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되었다. 르네상스 이전의 회화에서는 뒤에 있는 물체가 전경의 물체보다 작게 보인다는 ‘단축법’이 회화에 적용되기는 했으나, 전경과 후경이 하나의 소실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비례를 지닌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발견되었다.

원근법이 14세기에 이르러 발견되고 당대의 회화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의 변화와 도시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기독교 신앙이 깊숙한 사고의 기틀이 되었던 서구 중세사회에서는 사물에 대한 이성적 판단에 앞서 종교적 판단이 우선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지금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회화에서도 대상 인물들이 지닌 종교적 위계가 그림 내부에서의 크기와 비중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종교의 지위가 축소되었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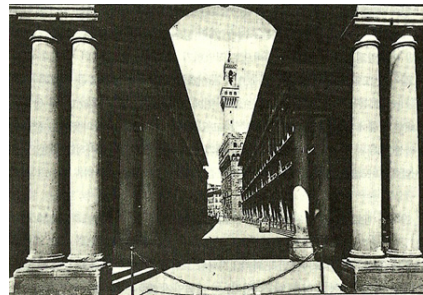


그림 1. 조르조 디 바사리, 우피치 광장, 1560-1574

이성과 수학적 비례를 이용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그리스의 문화는 르네상스에 이르러 이성과 합리주의 그리고 과학에 의해 계몽된 새로운 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풍조에서 대상들이 거리를 비례로 환원한 선형 원근법의 발견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원근법 회화는 사회전체로 확대되어, 단순히 회화의 구도에 머무르지 않고 사고의 기준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들뢰즈는 서양회화의 역사를 광학적 성격과 촉지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광학적 성격은 시각적 감각에 의존도가 높은 특성으로서 원거리적이고 유기적 조직의 경향을 지닌다. 반면 촉지적 성격은 근거리적이고 촉각적 경향을 지니는데, 이 둘을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대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2] 다만 고전적 재현은 광학적 조직 내에서 대상을 포착한다. 대상 이전에 설정된 광학적 조직이 대상 자체에 안정성을 부여한 것이다[3].

원근법은 평면의 화폭에 입체적 시각을 재현하면서 모든 요소들을 개별 관찰자가 보는 하나의 시점으로 귀

결시킨다. 따라서 화가의 능력은 사물을 실제와 동일하게 재현하는 능력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선형 원근법과 관계하는 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감각을 전달하고자 한 동일성의 사고로 이어진다. 원근법은 회화에 머무르지 않고 건축공간에도 적용되어 서유럽의 아케이드와 광장 그리고 도시의 형태에 이르는 공간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urer)는 「측량법」(The Painter's Manual)에서 투시도법의 원리는 분명하게 소개했다. 삽화로 소개된 이 실험기구는 화면 프레임에서 시작되는 줄의 끝에 연결된 바늘을 대상 사물의 윤곽선에서 만나게 하여 발생하는 자취를 도면 위에 그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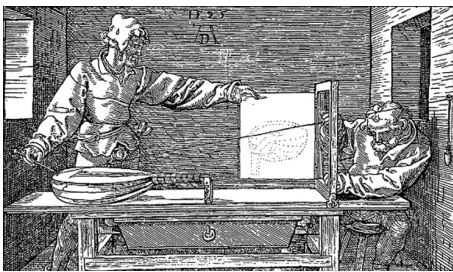


그림 2. 알브레히트 뒤러의 저서 「측량법」에 소개된 원근법 작도실험, 1525

그러나 선형 원근법은 하나의 눈으로 소설점으로 모여드는 사물들을 관찰한 1점 투시적 시각의 결과이다. 일반적인 인간의 시각이 두 눈을 이용한 감각의 결과임을 감안하자면 선형 원근법 회화의 재현요소들은 인간의 양안시각과는 결코 일치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

인간의 감각은 개별자들이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완전한 동일성을 갖지 못한다. 서구문화에서는 르네상스 이후 ‘개인’이란 주체가 등장했다. 개인의 등장은 중세사회의 중심이 되었던 종교로부터 벗어나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게 된 결과이다. 나아가 개인은 동일성의 사고를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예술가들은 동일성에서 벗어난 개별적 감각에 충실하여 과거의 예술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고전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움을 찾으려한 예술의 움직임이 모더니즘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모더니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방식을 탐구했던 예술운동들의 등장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근대의 주요한 형식으로 거론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각의 열정’이다[5]. 근대에 등장한 입체파, 인상주의, 구성주의 그리고 추상회화 등 대부분의 예술운동들은 동일성으로부터 벗어난 다른 감각들과의 ‘차이’를 의도하고 있었다. 입체파는 공간과 시간의 변화를 동시에 하나의 화폭위에 표현하고자 했고, 인상주의는 원거리적 감각에서 비롯된 형태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빛과 색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구성주의도 기존예술이 시도하지 않았던 순수 추상적 조형요소를 회화에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근대 이후에 등장하는 예술은 동일성보다는 개별성과 차이를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고전회화의 원근법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넓은 의미에서 포스트모던이란 명칭으로 대변되는 현대 예술에서도 차이가 더욱 확대되어 ‘다양성’이란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 2. 베이컨 회화의 요소

베이컨의 회화도 차이를 긍정하는 이러한 큰 흐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베이컨은 다른 예술과의 차이를 찾고자하되 그 방법은 감상자에게 작용하는 회화가 지닌 힘을 표현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컨은 스스로의 작품을 ‘폭력’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전쟁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적인 것이나 판에 박힌 것 같은 재현된 폭력을 대신하는 감각의 폭력’이다[6].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의 힘을 그리려 한 것이다. 폭력은 그림을 감상하는 감상자로 전달되는 외침이다.



그림 3. 프란시스 베이컨, 십자가형, 1965

들뢰즈는 「감각의 논리」에서 베이컨의 회화의 요소를 골격-배경(아플라), 형상-형태(형상) 그리고 윤곽-한계(트랙)로 구분하고 재 취합하여 요소들이 그 윤곽과 함께 형상이 골격 위에 미끄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의함으로 공간론을 설명하고 있다. 회화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형상(figure)이다. 일반적으로 형상은 사물의 잠재적 원리인 질료와 구별되며,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하는 것 또는 그런 형태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형상은 언제나 지시대상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대상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베이컨 회화에서의 형상은 사물과 동등한 존재론적 가치를 획득한, 자족적이고 독자적인 상이다. 어떤 이미지에서 그것이 환기한다고 간주되는 지적이고 개념적인, 혹은 추상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남은 것이다.

베이컨은 회화의 중앙에 형상을 배치한다. 그 형상은 알 수 없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인간도 동물도 아닌 하나의 신체이다. 형상이 어떠한 지시대상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신체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주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살덩어리의 모습을 한 형상은 도살장의 고기와 같아서 인격을 지닌 얼굴은 지워지고 격렬한 감각의 살덩이만이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베이컨 회화의 형상은 생명체가 지닌 조직화된 신체로부터 벗어나 강한 힘에 의해 뒤틀어져 버린 신체이다. 고통의 극한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신체이다. 베이컨은 형상을 문지르거나 물감을 뿌리는 돌발흔적을 남김으로서 강한 힘의 발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신체에 가해진 폭력과 그로인한 고통은 역으로 가장 강렬하게 감각을 받아들이는 신체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뼈로부터 흘러내린 살덩어리들은 다른 기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잠재적 힘을 지닌 상태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트랙(track, 동그라미)이다. 베이컨의 형상은 고전회화의 재현방식에 반대한다. 이러한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그 형상을 둘러싸고 있는 원형의 트랙 또는 그에 준하는 형태들이다. 이러한 트랙은 형상을 분리시킴으로서 재현회화가 지닌 구상적, 삽화적, 서술

적 기능을 제거해버린다[7].

그림에서 트랙들이 만들어 내는 영역은 하나의 장소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장소들이 형상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장소들은 형상이 자기 자신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지닐 수 있도록 영역을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단색으로 채워진 아플라(aplat)이다. 이는 배경처럼 형상과 트랙을 제외한 나머지를 점유하고 있는 색채 면이다. 아플라는 형상의 밑이나 뒤 혹은 그 너머에 있지 않다고 설명된다. 형상과 트랙의 바로 옆에 혹은 차라리 바로 주변에 채워져 물질적 골격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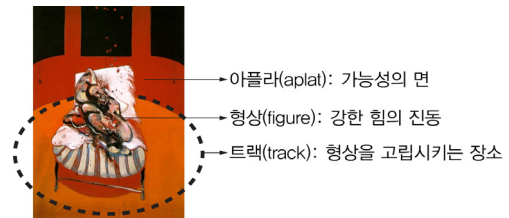


그림 4. 베이컨 회화의 세 가지 요소

들뢰즈는 아플라에 대해 활기차고 단일하며 부동의 색으로 된 거대한 영역이라고 표현했다. 단색으로 채워진 아플라에서 활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역이 고정되지 않고 형상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바로크 회화에서 강한 음영에 의해 만들어지는 어두운 배경과 유사하다. 바로크회화에서 어두운 배경은 회화의 주제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과 함께 또 다른 사건이 은닉하고 있는 잠재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플라의 활기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베이컨은 아플라를 조각상의 거대한 좌대로 설명한다. 조각이 미끄러지거나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각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 III. 들뢰즈 회화론의 공간적 특성

들뢰즈가 해석하고 있는 베이컨의 회화는 진술한 세 가지 요소가 중심이 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 요소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요소들

은 경계면에서 서로를 향해 진동하고 역동적 관계를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들은 평면적 회화에 종속되지 않고 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회화가 지닌 공간적 성격으로부터 현대 공간디자인의 분석틀을 설정하려는 것이다.

## 1. 형상과 사건

들뢰즈의 철학에 다루어지는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사건(event)이다. 특히 「의미의 논리」(Logique du Sens)에서 자신의 사유를 사건에 기초하여 전개한 바 있다. 사건이란 현대철학에서 인식의 주체가 중심성을 상실한 이후 주체의 특성으로 여겨져 왔던 초월성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제시된 내재성의 장에서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현대철학에서는 가장 근원적 실재이며 불변의 제1원리인 ‘일자’(the one)를 제거했기 때문에 외부에 존재했던 원인(초월성, 기준)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가 함께 혼합되어 서로 규정하고 규정받는 상태가 내재성이다[8]. 이 내재성에서 의미를 지니게 하는 것이 사건이다. 발생하는 사건의 근원이 그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들뢰즈가 해석하는 베이컨의 형상이 지시대상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 제거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살덩어리의 모습을 하고 트랙의 내부에 놓여 있는 형상은 잠재적 힘에 의해 움직임의 근원이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종의 경련’으로 언급되는데, 이 움직임을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감각의 논리에서도 형상의 움직임은 사건의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9].

사건은 연속적인 움직임(경련)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사라지는 것이다. 사건의 발생은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사건은 생성의 의미로 환원될 수 있다. 그리고 공간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불확정적인 프로그램이며 공간의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사건은 공간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과거의 건축공간이 조형의 원리와 기능적 원리를 설정하고 그 법칙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루이스 설리번(Louis H. Sullivan)의 선언이 의

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법칙에 의거한 공간은 세부공간들이 기능적으로 조직되어 완전한 집합체를 이룬다. 반면, 현대의 공간디자인에서는 빈틈없이 구성된 공간의 기능들의 조직은 약화되지만 그 공간 내부에서 사용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 공간의 기능(의미)이 생성되었다 다시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베이컨 회화의 형상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사건에 의해 의미를 획득하는 공간’이다. 사건의 발생은 순간적이며 우연적이다. 공간이 잠재성을 지니는 것도 어떠한 사건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상이 흘러내린 살덩이와 뼈와 표현되고 있는 것도 같은 관점으로 해석된다. 과거의 건축공간에서 법칙들이 공간구성의 원리로서 작용해 밀도 있는 조직체를 구성했던 것에 반해 오늘날의 공간의 조직은 느슨하고 불확실하게 계획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언제나 다른 사건과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 형상의 살덩이와 기관들은 요구에 따라 새롭게 조직되어 보다 예민한 감각체가 될 수 있다.

## 2. 트랙과 장소

건축에서 장소(place)는 많은 경우 하이데거의 ‘예술 작품의 근원’(The Origin of the Work of Art)에서 언급한 그리스 신전의 비유를 사례로 한다. 하이데거의 논의에서 신전은 ‘거기에 있는 존재’로서 특정 장소에 거주하는 건축을 의미한다. 모든 존재는 ‘거기에 이미 속해 있는 존재’이다. 어디엔가 속해 있는 존재는 자기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세계가 드러나는 양상을 두고 ‘장소성’이라 부른다[10]. 투시도에 의한 회화에서 감상자의 위치가 소실점의 앞으로 규정되고 각자 다른 감상자일지라도 불변의 재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앞서 형상과 사건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들뢰즈가 베이컨 회화로부터 탐색하는 장소는 고유의 존재가 지닌 고유의 장소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베이컨 회화에서 트랙은 형상이 앉아 있는 장소를 제한한다. 형상은 사건의 발생을 의미하고 트랙은 하나의 장

소로서 형상이 자신에게 행하고 있는 일종의 모색과 탐험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형상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 다른 장소로 변화한다. 이러한 회화의 작용은 장소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11].

기능주의적 건축공간이 서로 다른 존재에게도 동일한 장소의 감각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장소는 사건의 의미 발생에 따라 그 성격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장소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현대 공간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 ‘불확정적 프로그램’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 불확정적 프로그램을 공간의 감각하는 형상의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형상의 사건발생에 의해 새롭게 환기되는 장소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 3. 애플라와 상호작용

애플라의 단색면은 원근법적 회화의 서사적, 구상적 성격을 제거하면서 물질적 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형상과 애플라가 서로 만나는 윤곽은 일종의 이중적 교환이 일어나는 동식물의 막과 같다[12]. 애플라의 색면은 형상의 뒤에서 배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둘이 서로 만나는 경계에서 형상은 애플라를 향해 움직이고 애플라는 형상을 향하는 역동적 관계를 형성한다.

애플라는 정지해 있지 않다. 형상이 격렬한 경련으로 연속적인 사건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애플라의 단일 색상 속에는 시간의 지속이 내재하고 있다[13]. 이처럼 애플라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형상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활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간에서 애플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토대의 역할로 해석된다. 기능주의적 공간의 분절이 사라진 공간이다. 이 애플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건의 발생에 의해 또다시 의미가 변화하게 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비워진 토대이다.

애플라와 형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원인이 사라진 내재성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발적이기 보다는 비자발적 성격을 지닌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공간을 생성하는 것이다.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이다. 정해지지 않은 사용자들의 행위가 사건의 생성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애플라와 형상의 상호작용은 공간과 사용자간의 상호작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들뢰즈 회화론과 공간 분석어

앞서 들뢰즈의 회화론이 지닌 공간적 특성에 대해 고찰했다. 철학적 담론과 공간디자인의 접점을 회화라는 매개를 통해 찾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프란시스 베이컨의 회화의 세 요소와 상응하는 공간 특성을 구분했다. 이 공간적 특성들은 현대 공간디자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어의 역할을 한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회화요소와 그로부터 도출한 공간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공간 분석어

회화의 요소		공간적 특성
형상	▷	사건의 발생
트랙	▷	감각의 장소
애플라	▷	배경과의 상호작용

## IV. 램 콜하스의 실내공간 분석

### 1. 분석 작품 선정

램 콜하스 스스로가 자신의 작품과 들뢰즈의 철학적 개념이나 베이컨의 회화와의 연관성에 대해 직접 언급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행 연구와 문헌에서 콜하스의 작품과 들뢰즈의 사과의 관계가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다. 단, 베이컨의 회화로부터 들뢰즈 존재론이 지닌 공간적 본질을 구체화하고 그 개념을 통해 현대 공간디자인을 해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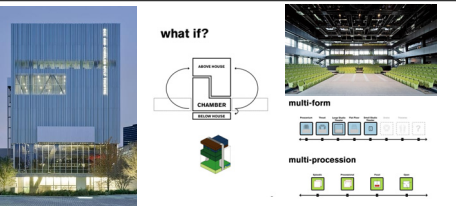
램 콜하스의 작품이 현대의 모든 공간디자인을 대표할 수는 없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의 작업이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다. 공간의 분석을 위해 램 콜하스의 작품 중 2000년 이후에 완공된 5개의 공간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을 회



화로부터 포착한 세 가지 공간언어로 분석한다.

2. 작품 분석

표 3. 렘 콜하스 작품 분석표

작품명	Syracuse Greek Theater Scenography	준공년도	2012
개요	그리스 고전공연을 위한 이탈리아 시라쿠스의 원형극장, 가동적 장치에 의해 변형되는 배경과 무대 적용		
작품 이미지			
공간 특성 내용	사건의 발생	관람객에게 극적상황을 보여주는 가변적 무대장치 (극의 내용에 따라 무대의 형태가 최적화 되도록 계획, 가변적 배우 동선 형성) 공연내용과 종류에 따라 회전 또는 변형되는 무대를 통한 의외의 상황연출(이벤트)	
	감각의 장소	공연 연출의 영역을 구획하는 두 개의 디스크, 반원형 객석을 하나의 원으로 연결하는 슬로프형식의 연결통로(무대 뒤 신설된 동선으로 객석이 하나의 완전한 트랙형태가 됨),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형성(들리츠 회화의 트랙과 동일한 형식)	
	배경과의 상호작용	다양한 공연의 수용이 가능한 무대와 배경 과거의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객석의 상호조화	
작품명	Prada Catwalk	준공년도	2012-2006
개요	프라다재단의 밀라노 패션쇼 무대계획 동일 공간이지만 시즌별로 달리 연출되는 설치물		
작품 이미지			
공간 특성 내용	사건의 발생	연도, 시즌, 남·여 구분에 따라 새롭게 기획되는 공간, 쇼(이벤트)의 발생, 기존 패션쇼의 형식을 벗어난 디자인적 시도	
	감각의 장소	쇼의 성격과 기획에 따른 무대와 객석, 장치의 변화, 쇼라는 새로운 장소의 주기적 생성	
	배경과의 상호작용	기존 패션쇼의 무대와 달리 런웨이와 객석의 구분 혼재, 새로운 사건을 수용하는 콘크리트 구조의 단색조 배경공간과 쇼를 위한 시설물의 극적 대조, 새로운 사건의 잠재력 내포(발표되는 시즌에 따라 새로운 쇼를 담아낼 수 있도록 비워진 공간)	
작품명	The Wylly Theatre	준공년도	2009
개요	공연공간을 제외한 관객 서비스공간, 부속공간을 의도적으로 적층시키고, 가변적 무대를 설치한 미국 델러스의 극장(수평 배치에서 수직 배치로 전환, 중앙 사진 참조)		
작품 이미지			

공간 특성 내용	사건의 발생	공연의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한 무대와 객석의 배치, 공연장 외벽의 개방과 폐쇄(부속공간의 수직 배치로 가능하게 됨), 관습적 디자인을 벗어난 새로운 감각의 생성	
	감각의 장소	공연 내용에 따라 객석과 무대의 새로운 관계 형성 (객석배치, 개방성, 무대장치 변화), 공연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무대	
	배경과의 상호작용	개방 가능한 공연장을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공간의 재배열, 관객과 배우의 동선이 분리되지 않는 공간구성, 최소화된 건축재료로 공연에 따른 가변성을 확보	
작품명	Prada Transformer	준공년도	2009
개요	한시적으로 서울 도심 고궁 앞뜰에 계획된 전시, 영화상영, 이벤트 등을 위한 사면체 구조물		
작품 이미지			
공간 특성 내용	사건의 발생	공간 자체의 회전과 프로그램의 변화, 우발적 경험 생성, 지속적 사건 발생의 잠재성, 회전에 따른 형태의 변화	
	감각의 장소	사면체를 구성하면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기하학적 다각형 평면, 사건을 위해 장소를 형성하는 막구조 공간, 각각의 기능을 수용하는 최적화된 장소	
	배경과의 상호작용	고궁의 앞뜰에 설치되어 도시맥락을 환기시키는 이질적 구조물, 일정기간 내에 발생하는 설치-회전-철거-환원, 프로그램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최소화된 건축재료 적용	
작품명	Casa da Musica	준공년도	2005
개요	포르투갈 포르도 시의 역사적 중심지에 위치한 다면체적 외형의 콘서트홀		
작품 이미지			
공간 특성 내용	사건의 발생	사용자에게 우발적 경험을 생성시키는 미로형 동선 (직속 사진), 개방 가능한 오케스트라 배경으로 인상적 공간 형성(중앙 사진 참조), 즉물적 마감재의 적용으로 공간별 차이발생	
	감각의 장소	협소하고 복잡한 공용공간을 계획하여 사용자의 인위적 이동을 유도하여 감각과 경험발생, 다면체의 외형과 반전되는 직육면체형 공연홀	
	배경과의 상호작용	공연시설 서비스공간의 관습적 배치 탈피(일반적인 로비, 공연장, 서비스공간의 배치가 아닌 서로 복잡하게 혼합된 형식), 대지가 지닌 역사적 특성 및 형태 (원형 교차로와 방사형 도로)라는 도시적 맥락에 반하는 다면체 외형 적용	

2. 소결

들리츠 회화론의 ‘형상’으로부터 얻은 ‘사건의 발생’은 공간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사건(이벤트)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간은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 다른 공간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움이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이



다. 램 콜하스는 사용자들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트랙’으로부터 얻은 ‘감각의 장소’는 사건발생을 유도하는 공간의 배치와 형태를 의미한다. 공간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장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램 콜하스가 계획한 건축공간은 가동적 장치를 이용하여 물리적 변화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자체의 물질적 변화는 없더라도 사용자가 내부를 움직이면서 공간을 달리 인식하게 되는 방식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아플라’로부터 얻은 ‘배경과의 상호작용’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사용자와 건축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사용자에게 사건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내부의 마감을 최소화 하거나 역으로 강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공간과 주변대지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램 콜하스가 계획한 공간은 대지 또는 주변 환경의 맥락을 거부한다. 그럼으로써 대지위에 새로운 상호작용을 만들어 낸다. 종합적으로 공간의 의미가 외부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에 있다는 점에서 내재성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

## V. 결론

결과적으로 베이컨의 회화를 통해 확인되는 들뢰즈의 회화론은 현대회화가 지향하고 있는 ‘차이’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더불어 이 차이는 단순하게 개별자들의 다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변화하는 끊임없는 생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들뢰즈의 회화론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공간의 본질에 대한 다른 시각이다. 원근법적 사고의 공간은 기능이란 원칙을 따라 변화가 최소화된 조직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은 공간디자인의 관습적 결과를 이끌었다. 그러나 들뢰즈의 공간론은 공간 자체가 정지해 있지 않음을 전제한다. 생명체가 끊임없는 운동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듯이 공간 또한 움직임 속에서 포착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성을 통해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램 콜하스 같은 디자이너의 사고에 흡수되

어 과거로부터 벗어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간을 생명과 움직임에서 포착하려는 시각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들뢰즈는 공간의 본질에 대한 관념이 영원불변의 고정된 상태에서부터 생성과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 관념의 변화는 실제적인 공간의 디자인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공간을 근본적인 사고의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디자인의 현상을 포착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간 디자인분야의 발전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 참고 문헌

- [1] El Croquis, 1987-1998 *OMA/Rem Koolhaas*, pp.403-407, 1998. 알레한드로 자에라의 평론 외에도 존 라흐망의 「들루즈 건축」 등 많은 문헌에서 램 콜하스의 건축공간과 질 들뢰즈의 철학적 개념과의 관계가 다루어지고 있다.
- [2]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p.150, 2008.
- [3]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p.145, 2008.
- [4] 박현수, 심은주, “투상도법을 이용한 건축디자인의 형태생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0권, 제6호, p.78, 2004.
- [5] 볼프강 벨쉬, *우리의 포스트모던적 모던 1*, 박민수 역, 책세상, p.186, 2001.
- [6]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p.52, 2008.
- [7] 박성수, *들뢰즈, 이름*, p.177, 2004.
- [8] 김석영, *주체의 탈중심화에 기초한 현대 공간디자인의 사건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8, 2012.
- [9]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pp.25-26, 2008.

- [10] 이승현, 이동연, “노베르그-슐츠(C. Norberg-Schulz)의 ‘장소성’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12권, 제3호, pp.151-152, 2003.
- [11] 앤드류 발렌타인, 건축과 철학-들뢰즈와 가타리, 장정제, 송규만 역, 시공문화사, p.58, 2010.
- [12]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p.23, 2008.
- [13]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p.163, 2008.
- [14] <http://www.oma.nl/>

저 자 소 개

김 석 영(Suk-Young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미술학사)
  - 2001년 8월 :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전공(디자인학석사)
  - 2012년 2월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실내건축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서일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강의 전담교수
- <관심분야> : 실내디자인, 공간의 사건성